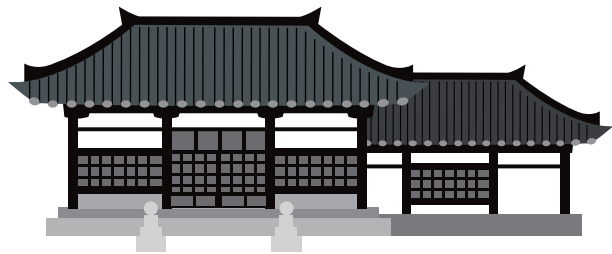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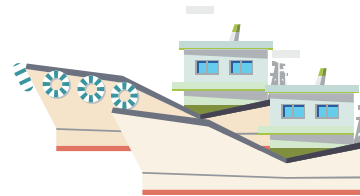




재생이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4021 군산시 구영7길 129
T. 063. 454. 4476~9 F. 063.442.1168

군산 손편지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박순영 초대회장

군산 우체통거리에서 6번째 손편지 축제(9월8~9일)를 이틀 동안 열었습니다. 관광객들과 많은 군산 시민들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알찬 시간이었음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체통 거리는 군산 우체국 주변인데 침체 되어가는 구도심인 이 지역 상권을 살려내고자 2014년에 공동체 모임을 결성하고 주민과 상가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이 이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관 협정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이 거리가 경관 협정 지역으로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군산시 우체통거리를 벤치마킹하러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자체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뤄낸 결과임을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연중 계속되는 느린 엽서 쓰기를 진행하고 있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우체통 거리에서 내년에도 더 알찬 손편지 축제를 준비하고 관광객들과 군산 시민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도시재창조 한마당

짜보선창 할머니가 떴다!

군산 도시재생 마을기업 천안서 깜짝 홍보

도시재생 선도도시로 알려진 군산시가 이번에는 3만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규모 행사에서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의 판매 홍보에 직접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9월 13일 천안시에서 열리는 「2023년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군산시 도시재생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전국 도시재생 단체 및 지자체 등 약 3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우리는 이번 행사에서 단순한 사업 홍보를 넘어, 중

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전북 최초로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으로 설립된 짜보선창 협동조합원들과 함께 '할매 맥아박 강정' 시식과 판매 홍보를 곁들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권남균 회장은 과거 군산 짜보선창의 이야기와 맥아박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설명했고, 군산시는 유명 유튜버 '섬마을 훈태'가 흥미롭게 제작한 할매 맥아박 강정 등 군산 도시재생사업 홍보 영상을 상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짜보선창 협동조합 이야기



할매 맥아박 강정

짜보선창 협동조합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주민공동체 짜보선창 변영회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2021년 지어진 수제맥주 양조장 비어포트가 핫플레이스로 성장하게 되면서, 마을공동체 수익 창출 방안으로 양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맥아 부산물(맥아박)을 활용해 웰빙 강정 간식을 개발하면서 설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비어포트 인근 금암동 일원에 14억 원을 투입해 터새로이 지원센터를 건립해 작업장을 마련했고, 지난해 '짜보선창 협동조합'을 전라북도 최초 마을기업으로 등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군산이라는 쌍화차 안의 '흰자'를 찾기 위한 3일

가을비가 내리고 제법 속이 허해지는 가을, 우리는 뜨끈~ 한 쌍화차를 찾는다. 노른자가 동동 뜬 쌍화차를 마시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진다. 여기서 문득 드는 한 가지 생각, 흰자는 어디로 갔을까?

군산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선유도, 군산세관, 시간여행 등등..

큼직큼직한 노른자 같은 키워드 뒤에 숨어있는 군산이라는 지역 내의 소소한 이야기거리를 찾고 이를 브랜딩하기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세 가지 주제로 뭉쳤다.

첫 번째 이야기 <창작>

비 내리는 저녁, 군산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9명의 청년이 국일다방에 뭉쳤다. 이들은 왜 군산에 있는지, 창작을 통해 군산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군산이라는 지역이 창작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예술하기 좋은 곳'이라고 표현했다. 사진을 찍고, 글을 짓고, 무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오성산, 팔마재 등 군산 곳곳에서 작품의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이야기하며 동국사를 배경으로 로맨스 소설을 쓰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다. 또 구례의 예술인마을을 벤치마킹한 곳이 군산에도 생겨나면 좋겠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두 번째 이야기 <친환경>

이색적이면서도 늘 화두가 되는 주제 친환경. 이날은 어떤 사람들이 모일지 가장 기대가 되는 날이었다.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는 사람, 단순히 군산에 애정을 가진 사람, 환경 활동가, 환경작가 등등 군산 <친환경>에 관심 있는 6명이 모였다. 이들은 요즘 아이들이 하늘을 그릴 때 잿빛을 그린다고 속상해하며 친환경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 하나'에 대한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며 한 번쯤은 미니멀리즘을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군산의 친환경 챌린지, 지자체와 시민을 잇는 활동을 친환경적 가치를 담아 타지역과 차별점을 만들면 좋겠다는 친환경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세 번째(마지막) 이야기 <공간>

군산에서 공간 운영을 하는 또는 공간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 7명이 만났다. 군산의 핫플레이스 디저트샵, 소품샵, 가죽공방, 게스트하우스, 카페 등 대표님들도 참여했다.

외지에서 온 사람 중 한 명은 시각에서는 군산의 고유성과 매력점은 '고요함'이라고 이야기하며 너무 고요해서 슬프기도 하나 이 고요함을 토대로 '살롱 도크사이드(부둣가)'행사를 연 경험이라고 이야기했다.



총3회의 군산다방에 참여하며 우리 군산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청년들이 내가 사는 군산에 바라는 점, 군산만이 가진 가치에 대하여 더욱 깊이 생각할 기회가 되었다. 소통협력센터와 함께 군산의 <로컬 브랜딩>, 그리고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변화하는 군산을 기대해 본다.

**군산다방
쌍화차의
흰자를
찾습니다**

<군산다방>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 내의 '로컬 크리에이터 살롱'의 일환으로 진행된 총 3회차의 프로그램입니다. 군산다방을 통하여 소통협력센터 군산을 거점으로 한 지속적인 로컬 모임을 운영하여 군산의 로컬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 후원, 군산시가 주최하며 소통협력센터 군산이 주관합니다.

제2회 구영길 한마당 마을 축제를 열며



박성근 군산시도시재생주민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군산시도시재생주민협의회 회장 박성근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간여행 축제가 끝나고 구영길에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는 10월 말에 주민이 구영길에서 따뜻한 축제를 열자’해서 시작한 구영길 한마당 축제가 오는 10월 28일 토요일 저녁 월명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거점인 근대쉼터를 중심으로 월명동 테마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2회 구영길 한마당 마을 축제]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 근대쉼터로 오십시오.

군산시도시재생주민협의회는 구영1길~7길 중에서 해마다 중심이 되는 길 위에서 주민들이 상상하고 꿈꾸는 축제를 실현하는 구영길 한마당 마을 축제를 열어갈 것입니다.

올해는 구영6길이 중심이 되어 열리는 구영길 한마당 마을 축제입니다. ‘마을 한 바퀴’프로그램으로 마을 곳곳을 돌며 길마다 쌓여있는 이야기를 듣고, 동시에 걸으며 쓰레기 줍는 ‘가족과 함께 플로깅’을 진행합니다. 쌀쌀해지는 늦가을 저녁 모두 함께 구영길에서 플로깅(쓰레기를

주우며 산책하기)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 ‘달 등 만들기’체험도 준비했습니다. 전문 가이드와 함께 달 등 제작 과정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불멍 고구마 구워 먹기’, 음식을 주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 이웃과 나눠 먹는 ‘포틀럭 파티’,

주민들이 여는 ‘장터마켓’은 눈과 입과 마음이 즐거운 따뜻한 구영길 한마당 마을 축제를 무르익게 해줄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작은 음악회’도 다양한 장르와 악기 연주로 10월의 늦은 밤 낭만의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구영길 한마당 마을 축제를 즐기며 구영길 곳곳에 추억을 쌓고 가족과 이웃과 연인들의 ‘소통의 온도’도 한껏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신동 주민협의체 정기회의

지난 8월 28일 해신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해산물 가공센터 조성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견으로 주민 협의체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이현현 도시재생과장님과 한민솔 도시재생 역량팀장님의 인사가 있었고, 이어 설정환 도시활성화계장님의 현재까지 도시재생 사업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은 협의체 위원들은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주도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신동을 가꾸어 갈 것인가?’ 끊임없는 조언과 고민으로 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린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건립될 해산물가공센터의 주인은 해신동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진지견학 또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목표로 계획했으며, 해산물가공센터 건립 시 보고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시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해망굴 패션쇼

제11회 군산시간여행 축제 연계 해신동 도시재생 홍보

국가등록문화재인 해망굴을 군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알리고,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주민이 참여한 해망굴 패션쇼는 군산시간여행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공연을 통한 즐길거리와 근대의 느낌, 감동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군산을 알리고 다시 찾도록 2023 근대거리 <해망굴 패션쇼>를 23년 10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군산시 해망굴 일원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소룡동 마을 매니저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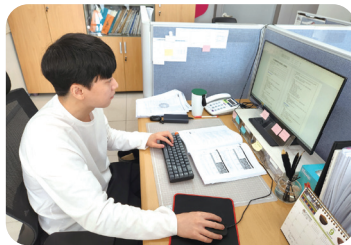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군산시 소룡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의 마을 매니저로 들어온 정준영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관심이 있지만, 아직은 경험과 지식 면에서 부족함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더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소룡동을 만들기 위한 팀원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은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사와 우려 사항을 존중하고 함께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군산 소룡동의 도시재생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역할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언제든지 물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룡동 정준영 마을매니저



안녕하세요~! 군산시 소룡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의 마을매니저 김정화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마을매니저로 입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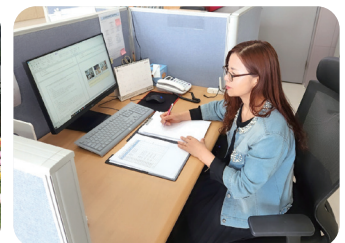
한동안 닫혀 있었던 소룡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가 재오픈을 했습니다. 공백기간이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소룡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소룡동 주민으로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소룡동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응대하고 협력해 온 경험을 소룡동에 적용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과 주민 지역 사회를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쉽게 찾아와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신뢰를 주는 마을 매니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의견을 나누고 싶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룡동 김정화 마을매니저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4021 군산시 구영7길 129

T. 063. 454. 4476~9 F. 063. 442. 1168